

신앙외 혁신을 위하여

우리 나라 말 가운데 <멋>이라는 말이 있다. 풍치있는 맛, 사물의 진미 혹은 격에 맞는 일들을 가리켜 멋이 있다고 한다. 멋을 나쁜 뜻으로 사용하면 좀 방탕한 기상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멋이라는 말의 진의를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는 대단히 깊은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멋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성에서 우리나라와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멋을 다른 사람이 모방할 때 대단히 <멋적은> 결과로 끝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멋은 참으로 개성적이다. 서부 활극에 나오는 주인공의 멋을 만일 한국 사람이 흉내 썼다가는 그야말로 남의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멋은 오직 한 번 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멋이 있어 보이는 일도 자꾸 반복하면 그 멋의 가진 맛이 감소되고 만다. 이렇게 멋이란 개성적이며 비반복성을 띄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넓은 교양과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을 사귀면 사귄수록 그 사람의 멋을 이해하게 된다. 멋은 외형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 질은 개성을 가진 사람만이 참다운 성격적인 멋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금년 4월에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두번 다시 보기 힘든 멋있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다. 학생들의 데모가 점점 확대되어지자, 전국민은 정성을 다해서 성원하였다. 겨레의 몸과 마음을 태워 버릴 듯한 혁명이었다. 멋이라는 데서 이 사건을 표현한다면 좀 경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충동시킨 사건이며, 과연 멋있게 치룬 혁명이었다. 연쇄 반응으로 일본과 터키에서

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건은 좀 추잡한 결과로 끝났고 터키에서는 종래에 군부의 구테타로 혁명을 완수했다.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의 신변을 두루 살펴 보면, 4·19 이후에 5백 여회나 되는 큰 데모, 작은 데모들이 발생하였다. 쌓이고 쌓인 과거의 울분과 억제에 대한 반감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옳고 그르고 보다도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이다. 프라카드, 구호, 연좌 데모, 농성, 이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주장을 표현할 수 없을까? 비개성적이며 반복적이었다는 의미에서 좀 <멋지게> 보여질 때가 많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누가 한 가지 신기한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시간과 장소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려고 하는 폐단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남의 멋을 덮어 놓고 되풀이 하여 보자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독창성이 없는 곳에서 멋을 찾아 보기는 힘든 것이다. 문제의 제기에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그 해결 방법에도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비슷한 학교 분류, 노동 정의에도 그 경우에 따라, 혹은 해결하려고 하는 양측의 태도에 따라 해결 방법이 서로 다를 것이다. 획일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뜻하지 아니한 종막을 보는 사태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되는 것이다.

× × ×

오늘날의 세계 정세나 우리 나라의 정치 정세를 살펴 보면 그야말로 어수선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의 시야를 한국 교회에만 국한하여 보아도 거기에는 허다하고 착잡한 문제가 영키고 성

켜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은 어떠한 각도로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양상을 띄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크리스천다운 관용이라든지 겸손, 양보, 긴덕, 협조의 정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가 뭉쳐서 하나의 힘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보겠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실천이 결여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뿔과리 소리 같은 설교의 <인플레이>인 것이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록 근거는 박약하였지만 신학적인 노선을 내 걸고 교회는 피차 싸웠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명분 없는 정쟁>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한국 교회의 역사가 벌써 내포하고 있었다. 교파적 폐쇄성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는 거의 불감증의 만성 고질 환자가 되어 버렸고 주체성을 잃은 타계적 신앙만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발언할 용기조차 가지지 못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한국 교회는 하루라도 속히 순교 영웅주의의 아나크로니즘을 탈피하여서 전쟁과 혁명의 한계 상황에서 대단한 신앙적 용단을 내려야만 한다. 이러한 일을 소홀히 할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교회의 문전에는 <이가 붓>이라는 명패가 붙게 된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애끓는 심정으로 참다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갈구한 때가 과거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위기를 절저하게 의식하고 넓은 도량으로 포섭할 수 있으며 웅졸하고 줄열한 잔 재주를 부리지 않는 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아카데미한 시니시즘, 근본주의적인 과대망상으로 오늘 위기는 극복은 커녕 더 악화시키고 말 것이다. 시대의 핵심을 신앙적으로 바로 파악하고 예언자로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대범하게 오늘의 죄악과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를 우리는 갈구한다.

우리에게는 종교적 연막 속에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사랑과 덕으로 떳떳하게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으며 학식으로나 신앙으로나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한국 크리스천의 사고 방식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누구나 흉내낼 수 없고 되풀이 할 수 없는 참다운 신앙적인 <멋>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